

aT 농식품 인재 채용 '압'에게 물어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
가입 회원 4000명 돌파
회원 215명 취업 ‘등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정책 소통활성화, 취업·일자리 창출 및 농식품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농식품미래기획단’(YAFF·Young Agri Food Fellowship·이하 압)의 회원이 4000명을 돌파했다. 또 압 활동을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하는 대학생들도 늘고 있다.

지난 31일 aT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글로벌 청년 네트워크 압의 온라인 회원이 3월 기준 4080명을 기록했다. 이중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도 8개국 558명에 달한다.

압 운영 목적은 좋은 일자리 부족, 기업과 취업희망자간 미스매칭, 진출을 원하는 분야별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타 산업 대비 열악한 농식품분야의 인재 육성과



aT가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분야 청년 네트워크인 압 3기 회원들이 지난 18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발대식을 했다. <aT제공>

인재들이 참여한 커뮤니티를 통해 산업내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도 aT가 압을 운영하는 취지다.

특히 압 회원 중 500여명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등 주요 8개국의 유수의 대학교 학생들이어서 농식품 분야 글로벌 청년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

압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aT에 따르면 지금까지 압 회원 215명이 취업했고 이 중 125명(약 58%)이 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돼 농식품분야에 진출하는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이다.

실질적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한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인턴십프로그램에는 49명의 학생이 28개 기업에 파견됐다.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의 경우 총 6명의 대학생이 4개국(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현지 기업에 파견돼 이중 베트남에서 활동한 최경영(강원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씨가 현지 주재원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외에도 농식품 업체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등에게 다양한 기업 탐방 기회와 교육을 하고 있다. 기업 탐방과 교육은 총 36건으로 716명이 참여했다. 올해도 aT는 지난 18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 3기 압 발대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압 회원 20여명은 정책사업 체험 10회, 농식품 인재육성 교육 3회에 참여하게 된다.

또 식품기업일자리페어에 참여하고 강소식품기업을 탐방하게 된다. 국내외 청년인턴 등을 통해 해외 주요국 식품무역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미래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선도 기업들 한자리에

산자부 협의회, 한전 등 참여

광주 광산구에 자립형 발전장치

에너지 신산업인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 사업의 초기 성과 창출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지난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담당장, 한국전력, SKT,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등 산업부와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그리드 확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그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스마트그리드 확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지능형 전력 소비 효율화 등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에너지 수요와 사용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력사용량의 5~10%를 절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8개 컨소시엄 주관 기업들은 전국 13개 지역의 다양한 주택가

등에서 구현 가능한 사업모델을 소개한다.

특히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 모델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빌딩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설치해 에너지 이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다.

한전, SKT, KT, 포스코 ICT, 현대오일뱅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화, 반월 등에 174개의 빌딩에너지관리 및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원에너지와 집코는 분산전원(태양광, 연료전지 등)을 통해 실시간 전력 수요정보를 제공 받아 발전량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공급 효율화 서비스를 서울·광주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선이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했다.

기업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용 요금제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 개혁이 사업 경제성을 높이고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담당장은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핵심 플랫폼인 스마트그리드가 전국으로 확산돼 다양한 신산업모델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 지역별 스마트그리드 사업

수원 에너지	광주 광산구 자립형 분산전원
KT	경기 시화, 경남 창원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SKT	제주, 경북 군위, 부산, 경남 창원 에너지 효율화, 수요반응관리
한전	서울, 제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남양주, 강릉 AMI기반 전력서비스 에너지소비 컨설팅
LS산전	부산 IOT기반 클라우드 에너지서비스
포스코 ICT	경북 포항, 강원 동해 EMS활용 에너지 효율화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육성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수출 프로젝트 발굴에 나설 것이며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로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T, 해외 수출시장 조사비용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오는 4월 11일까지 ‘2016 수출업체 해외시장 조사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출업체가 국내외 전문조사기관을 활용해 희망시장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그 조사비용을 매칭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사업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16년 10월말까지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고 국내외 전문조사기관 이용 조사용역비, 해당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국고 지원비율은 대기업은 총 조사비용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0%이다.

올해는 12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업체 선정 과정에 수출실적, 수출액 증가율,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신청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된다. 문의 061-931-0875.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전은 지난 29일 호남대, 목포대 등 지역 전기공학 대학생을 초청해 ‘HVDC 전력 기술 캠프’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대학생 ‘HVDC 전력기술 캠프’

호남대·목포대 40명, 본사·진도서 첨단기술 체험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29일 광주전남지역 전기공학 전공 대학생을 초청해 ‘HVDC 전력기술 캠프’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전력기술캠프에는 목포대와 호남대에 재학중인 전기공학 대학생 40명이 참가, 한전 본사와 진도 HVDC(초고압직류송전시스템) 변환소를 방문해 HVDC 기술과 현장실비를 견학했다.

이날 한전은 ‘국내 HVDC 현황과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HVDC 기술을 비롯해

한전이 추진하는 국내외 사업과 기술개발 현황 등을 소개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HVDC와 같은 첨단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캠프를 계기로 한전의 신기술개발 노력에 대한 열정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도 지역대학과의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HVDC 저변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농어촌 문학상’ 대학생도 지원하세요

농어촌공사, 대학생 부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농어촌을 주제로 하는 ‘2016 농어촌 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농어촌문학상은 농어촌에 대한 향수와 삶을 표현한 문학작품을 통해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2014년 처음 제정됐다. 올해는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 부문을 신설했다.

공모 부문은 총 4개로 시(시조 포함)는 분량 제한이 없이 3편, 단편소설은 200자 원고지 60~100매 1편, 수필은 편당 15매 내외 2편, 동화는 편당 30매 내외 2편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며, 수상작은 9월 22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공모 자격은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인 부문은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대학생 부문은 국내외 2년제 이상 대학 재학·휴학·졸업예정자만 가능하다.

수상작은 일반인과 대학생 부문을 통틀어 대상 1편, 일반인 부문 중에서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과 우수상 각 2편, 대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2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상금은 대상 1000만 원, 최우수상 각 500만 원, 우수상 각 200만 원이다.

접수는 한국문인협회 홈페이지(www.ikwa.org)나 우편(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017호, 농어촌문학상 담당자 앞)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02-744-8046.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